

관객 혼란 유도·끝날때까지 긴장감 '팽팽'

이경미 감독 스틸러 영화 '비밀은 없다'

국회 입성을 노리는 신에 정치인 '종찬'(김주혁)과 그의 아내 '연홍'(손예진)은 총선 공식선거운동 첫 날 딸 '민진'(신지훈)이 사라진 걸 알게 된다. 연홍은 선거보다는 딸을 찾는 게 먼저라고 종찬을 다그치지만 종찬과 그의 선거 사무소 직원들은 선거를 망칠지도 모른다며 민진을 조금만 더 기다려보라고 말한다. 하지만 민진은 돌아오지 않고 연홍은 직접 딸을 찾아 나선다. 영화 '비밀은 없다'(감독 이경미)는 스틸러 장르의 기본을 놓치지 않는다. 그 기본은 관객의 예측 가능성에서 벗어난 전개다. 부모가 사라진 자식을 찾으려는 자식에 대해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아간다는 이 영화의 골격은, 이 장르의 많은 영화가 반복했던 서사다. 그러나 이경미 감독은 이 전형성을 촘촘하게 매설해놓은 빈전으로 극복한다. 관객이 러닝타임 동안 차례로 드러난 정보로 영화의 몰타주 완성을 시도할 때, 비밀은 없다는 또다시 새로운 정보를 내놓으며 이를 방해한다. 관객의 혼란을 유도해 영화의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게 하는 이경미 감독의 '방해 행위'는 이야기 밖에도 있다. '비밀은 없다'는 관객에게 익숙하지 않은 음악이 있다. 상황과 맞지 않아 보이는 음향이 있고

의도적인 어색함을 택한 대사 방식이 있다. 그리고 과장된 촬영이 있다(일각에서는 박찬욱 감독의 영향을 너무 받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한다). 이러한 갖가지 효과를 통해 비밀은 없다는 최소한 영화가 끝날 때까지 긴장감을 유지하는 데 성공한다. 문제는 이 영화의 긴장감이 철저히 반들어진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이 영화의 반전은 강박적이고, 이질적이어서 새로운 갖가지 세부사항들은 작위적이다. 물론 창작물에 강박과 작위의 요소가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이것들이 관객의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다. 이는 일차적으로 영화의 매력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 궁극적으로 이 영화가 관객에게 던지려는 메시지의 파장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요약하면 '비밀은 없다'의 맥거핀은 너무 맥거핀처럼 보이고, 연출의 디테일은 그 디테일을 너무 뽐내는 듯하며 반전은 반전마다 너무 힘이 들어가 있다. 이렇다 보니 긴장은 하지만 연출의 감정에는 몰입하지 못한다. 이 작품이 만약 장르물의 쾌감을 극대화해 거기서 끝을 보려는 작품이라면 상관없겠지만, '모성'이라는 주제를 스틸러



국회 입성을 노리는 신에 정치인 '종찬'(김주혁)과 그의 아내 '연홍'(손예진)은 총선 공식선거운동 첫 날 딸 '민진'(신지훈)이 사라진 걸 알게 된다. '영화 비밀은 없다' 스틸컷

의 외피를 둘러 표현하려는 영화라면 이런 연출법은 그리 효과적이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손예진의 열연도 그리 감동적이지 않다. 관객은 연홍의 광기를 영화 안에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짐작으로 훑는다. '딸을 잃어버린 엄마라면 나라도 저렇

거야' 식의 추측이다. 영화는 마지막 장면에서 관객이 크게 감동받기를 바라는 것 같지만, 반대로 관객은 어리둥절한 공산이 크다. '비밀은 없다'는 모성에 관한 영화라기보다 모성을 '활용'한 작품에 가깝다. /이성주기자

경찰, 박유천 첫번째 고소녀 등 4명 출국금지 요청

경찰이 성폭행 혐의를 받는 그룹 J의 박유천(30)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검찰에 요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씨와 박씨 측에서 무고 혐의로 맞고소를 당한 첫번째 고소인 20대 여성 A씨, A씨의 남자친구와 사촌오빠로 알려진 인물 등 4명의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경찰은 박씨 측이 이달 20일 첫번째 고소인 A씨 등을 상대로 공갈 및 무고혐의로 맞고소함에 따라 출국금지 요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한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박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4일 뒤 '강제성은 없었다고 진술을 번복하며 고소를 취하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A씨와 박씨 측 간에 거액의 합의금이 오갔다는 의혹도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이후 박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한 여성이 3명 늘었고 이 중 네 번째 고소인 D씨는 고소장 접수 당일인 지난 17일 경찰 조사에서 "(박씨와) 성관계를 한 것은 맞지만 강제성이 있었던 건 아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확인해볼 수 없다"면서도 D씨는 이를 뒤인 19일에도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고소를 취하할 의사를 밝힌 적은 없고 1차 진술과 2차 진술을 분석해 볼 때 진술을 번복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김민근기자



엑소 세번째 앨범 이그젝트 유나이티드 월드차트 1위

그룹 '엑소'가 세 번째 정규앨범 '이그젝트(EX'ACT)'로 전세계 음반 차트를 평정했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엑소의 '이그젝트'는 전세계 음반 판매량 집계 사이트 미디어 트래픽(Media Traffic)이 운영하는 유나이티드 월드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 앞서 한터차트, 신나라레코드, 예스24, 알라딘, 핫트랙스 등 각종 국내 음반 주간차트에서도 2주 연속 1위를 지킨 데 이어 가온차트 앨범 부문에서도 2주 연속 정상에 오르는 등 독보적인 1위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김민근기자

전북현대, 김이주 코치 영입

전북현대모터스축구단(단장 이철근)이 현역시절 공격수로 활약했던 김이주 전 군산제일고 감독을 코치로 영입했다. 1989년 일화에서 프로 데뷔한 김이주 코치는 1989년부터 1999년까지 11년간 266경기에 출장해 39골 23도움을 기록했다. 특히 일화가 정유리그 3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던 1993년부터 1995년까지 팀의 주축 멤버로 활약한 바 있다. 은퇴 이후 고향인 군산으로 돌아가 군산 제일고등학교 축구부를 10년간 이끌었다. 그동안 수비수 출신으로만 이루어져 있던 전북의 코치진에 공격수 출신의 김이주 코치의 합류로 팀 공격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김민근기자

NBA 필라델피아 신인 드래프트 1순위로 벤 시몬스 지명

키 208cm에 전 포지션 소화

미국프로농구(NBA)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가 신인 드래프트 1순위로 루이지애나 주립대 벤 시몬스(20)를 지명했다. 필라델피아는 24일(한국시간) 뉴욕 브루클린 바이클레이스 센터에서 열린 2016 NBA 신인 드래프트에서 호주 출신의 시몬스를 선택하며 전체 1순위 지명권을 행사했다. 1순위로 뽑힌 시몬스는 신장 208cm, 체중 109kg의 체격조건으로 슈팅 가드를 제외한 전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로 평가 받았다. 지난 시즌 루이지애나 주립대 1학년 신분으로 경기당 평균 19.2점, 11.8리바운드, 4.8어시스트, 2스틸을 기록했다. 신장에 비해 볼 핸들링이 우수하고 리바운드 능력이 좋다. 패스 감각이 뛰어나 일각에서는 포스트 르브론 제임스의 자질을 갖췄다는 호평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공격 투트가 절대적으로 인사이드에 의존하는 등 단조롭다. 슈팅이 불안

정해 마들레인지 경기를 펼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지난 시즌 3점슛을 단 3개만 던졌을 뿐이다. 소속팀 루이지애나 주립대는 NCAA 토너먼트 진출하지 못했다. NCAA 토너먼트를 경험하고 못하고는 큰 차이가 있다. 팀의 주축 선수로서 토너먼트와 같은 압박감이 심한 경기에서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몬스의 성공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도 존재한다. 지난 시즌에도 10승7패로 NBA 전체 최저 승률을 기록하며 1순위 지명권을 손에 넣었다. 매년 유망주를 끌어 담고 있는 필라델피아지만 시몬스의 합류에도 내년 시즌 전망은 밝지 않다. 2순위 지명권을 가진 LA 레이커스는 듀크 출신 브랜든 잉그람(19·206cm)을 지명했다. 좋은 신체조건을 가진 잉그람은 시몬스에 비해 운동 능력은 다소 떨어쳐도 슈팅에 있어서는 훨씬 자유롭다. 지난 시즌 ACC서 평균 17.3점, 6.8리바운드, 1.4블록슛을 기록하며 ACC 올해의



필라델피아는 24일(한국시간) 뉴욕 브루클린 바이클레이스 센터에서 열린 2016 NBA 신인 드래프트에서 호주 출신의 시몬스를 선택하며 전체 1순위 지명권을 행사했다.

신입생에 선발됐다. 10여년 간 팀을 이끌었던 코비 브라이언트가 은퇴한 뒤 리빙턴 출신 레이커스는 잉그람을 선발하면

서 지난 시즌 2순위 디안필로 러셀과 함께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됐다. /김민근기자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공동발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THE GREAT CHANGE

태권도원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